

22名)은 $170 \pm 20 \text{ mmHg} / 112 \pm 14 \text{ mmHg} (\pm \text{S.D.})$ 였다.

2) 正常血壓群과 本態性高血壓群의 血漿 Prolactin 濃度는 各各 $9.9 \pm 4.29 \text{ ng/ml} (\pm \text{S.D.})$, $14.4 \pm 8.43 \text{ ng/ml} (\pm \text{S.D.})$ 로서 高血壓群의 濃度가 統計的으로 有意하게 높았다. ($p < 0.005$)

3) 高血壓 患者中에서 崔等の 基準에 依해 分類한 低 Renin 活性群(16名, 男子 5名, 女子 11名)의 血漿 Prolactin 濃度는 $9.8 \pm 5.32 \text{ ng/ml} (\pm \text{S.D.})$ 로서 正常血壓群과 統計的으로 有意한 差異가 없었고, 正常 및 高 Renin 活性群(34名, 男子 23名, 女子 11名)은 $16.6 \pm 8.8 \text{ ng/ml} (\pm \text{S.D.})$ 로서 正常血壓群에 比해 뚜렷한 增加가 있었다. ($p < 0.001$)

4) 血漿 Prolactin 濃度와 血漿 Renin 性值와의 相關關係는 正常血壓群에서는 없었고, 本態性高血壓群에서는 統計的으로 有意하게 있었다. (相關係數=0.736, $p < 0.005$)

5) 本態性高血壓 患者中에서 低 Renin 活活性群은 血漿 Prolactin 濃度와 Renin 活性值間에 相關關係를 보이지 않았고, 正常 및 高 Renin 活性群은 뚜렷한 相關關係를 보였다. (相關係數=0.775, $p < 0.005$)

6) 24 時間尿 Natrium 量과 血漿 Prolactin 濃度間의 相關關係는 正常血壓群, 高血壓群 모두에서 없었다.

28. 경구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한 환자에 있어서 혈중 cortisol 에 관한 연구

연세醫大 방사선과

朴正喜 · 金基濂 · 朴昌潤

근래 방사면역측정법에 의한 혈중 호르몬 측정이 가능해진 이래로 cortisol 도 비교적 간단하고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임상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corticosteroid 계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부신 피질 기능이 저하되며 정상인에서 볼 수 있는 cortisol 분비의 주야간 변이(diurnal rhythm)와 혈중 농도의 변화가 일어나며 임상적으로도 여러가지 부작용을 일으킴이 보고되어 있다. 저자들은 1976년 6월부터 1980년 3월까지 연세대학교 연세의료원에 내원하여 cortisol 치를 관찰하였던 여러종류의 환자중 steroid 계 약물 투여의 병력을 가진 32명의 환자에서 임상증세와 방사면역측정법에 의한 cortisol 의 주야간 변이등을 분석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내원당시 steroid 계 약물의 부작용을 호소한 경

우는 32명중 24명(75%)였다.

2. 주야간 변이의 이상을 초래한 경우는 32명중 21명(65%)였고 이들은 1예를 제외하고는 오전 8시에 측정된 농도가 오후 8시 농도의 2배가 안되는 경우와 일치되었다.

3. 주야간 변이의 이상을 초래한 경우 평균 약물 복용 기간은 4년 11개월이었고 이상이 없었던 경우는 평균 2년 9개월이었다.

4. 오전이나 오후에 혈중 cortisol 농도가 정상치를 벗어난 경우가 21명(65%)이었고 이것을 주야간 변이의 이상을 일으킨 경우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29. 胸腔液 CEA 値를 利用한 良性, 惡性 鑑別

서울醫大 內科

張然復 · 權仁順 · 崔成在

崔康元 · 韓鏞澈 · 李文鎔

胸腔滲出液의 良性 및 惡性의 鑑別진단을 위해 細胞學的 檢査가 널리 利用되고 있으나 細胞學的 檢査는 그 銳敏度가 낮고 간혹 假陽性을 보이는 수가 있다. 1978년 Rittgers 등은 胸腔滲出液에서 CEA 値를 測定하여 惡性인 경우에 CEA 値가 增加하며, 이에 細胞學的 檢査成績을 첨가하면 악성의 진단율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演者들은 胸腔滲出液의 CEA 測定值의 診斷的 意義를 評價하기 위해 1980년 3월부터 4월까지 서울大學校 病院에 入院했던 胸腔滲出液 陽性의 30例에서 胸腔滲出液 및 血清 CEA 値를 放射免疫測定法으로 測定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良性胸腔滲出液 患者 22명에서 시행한 胸腔滲出液 CEA 値는 $2.5 \pm 2.1 \text{ ng/ml}$ 였으며 惡性胸腔滲出液 患者 8명에서는 $92.8 \pm 8.7 \text{ ng/ml}$ 로 良性患者群에 비해 유의한 增加를 보였다.

2) 良性患者의 血清 CEA 値는 $2.2 \pm 1.27 \text{ ng/ml}$ 였고 惡性患者 CEA 値는 $54.5 \pm 22.5 \text{ ng/ml}$ 였으나 胸腔滲出液과 血清 CEA 値間에는 상관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3) 胸腔滲出液 CEA 値가 10 ng/ml 이상이고 細胞學的 檢査上 Pap class III를 診斷基準으로 정하면 CEA 値는 8例중 7例에서 細胞學的 檢査는 8例중 6例에서 惡性胸腔滲出液을 顯示하였다. 따라서 8명중 2명은 胸腔滲出液의 CEA 値로 惡性의 診斷이 可能하였다.

以上の 結果로 보아 胸腔滲出液 CEA 値 測定은 細

胞學的 檢査와 더불어 價値있는 檢査法으로 여겨진다.

30. 정상인 및 비악성 간·담도질환에서 혈청 AFP의 정량검사에 관한 연구

부산복음병원 내과

김익모·지해기·백영직
박형준·윤병오

1964년 Tatarinov에 의해 원발성 간암환자의 혈청 내에서 AFP이 증명된 이후 AFP은 원발성 간암의 진단에 널리 이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간염, 간경변증 등 비악성 간 질환에서도 이가 검출됨이 보고된 바 있으며 특히 AFP의 방사면역측정법에 의한 검사의 예민도가 개선됨과 동시에 정량검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상인에서도 AFP이 검출될 뿐만 아니라 비악성 간 질환에서도 이가 정상치 이상으로 상승함이 알려지게 되었다. 최근 HBV 감염과 원발성 간암과의 인과 관계를 시사하는 보고가 많고 또한 B형 간염은 야급성 간염이나 만성 간염의 경과를 거쳐 후피사성 간경변증으로 진행되고 궁극적으로 원발성 간암으로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HBsAg이 중요한 원인인자로 지목됨에 따라서 비악성 간 질환에서 혈청 AFP 및 HBsAg에 관한 관심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에 연구자들은 정상인 및 비악성 간·담도질환에서 혈청 AFP의 정량검사와 동시에 HBsAg과의 상호관계를 추궁코자 부산복음병원 내과 외래 및 입원환자중 HBsAg 보균자 5예, 급성간염 29예, 만성간염 15예, 간경변증 102예, 간 농양 4예, 담낭질환 8예, 폐쇄성 황달 5예 등 총피검체 168예를 대상으로 Dainabot Radioisotope Lab의 AFP RIA Kit를 이용한 방사면역측정법에 의한 혈청 AFP치를 정량 측정하고 이를 정상인 93예의 성적과 비교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정상인 93예의 혈청 AFP치의 범위는 1.0~60.0 ng/ml 이었고 그 평균치는 13.1±15.3 ng/ml였으며, 정상치의 상한선은 45 ng/ml이었다.

2) 정상인의 혈청 AFP치의 분포는 1.0~10.0 ng/ml 사이가 64.52%로 가장 많았으며, 남자(14.5 ng/ml)가 여자(9.8 ng/ml)보다 다소 높았으나 연령의 변동에 따른 AFP의 평균치에는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3) 각종 간·담도질환에서 혈청 AFP평균치는 HBsAg 보균자가 10.84±19.66 ng/ml, 급성간염 50.04±

104.80 ng/ml, 만성간염 95.27±218.91 ng/ml, 간경변증 56.57±134.76 ng/ml 등이었으며 정상치보다 증가된 예는 급성간염 24.14%, 만성간염 26.67%, 간경변증 24.50% 등이었고 500 ng/ml 이상으로 증가된 예는 만성활동성 간염 1예, 간경변증 3예였다.

4) 급성간염 29예에서 혈청 AFP평균치는 혈액 HBsAg 양성군이 77.23±139.05 ng/ml, HBsAg 음성군이 20.90±32.66 ng/ml로서 HBsAg 양성군에서 다소 높았으며 혈액 HBsAg 양성율과 혈청 AFP상승(AFP>45 ng/ml)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 다(p<0.05).

5) 급성간염 29예에서 SGOT치의 변동에 따른 혈청 AFP의 평균치에는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6) 만성간염 15예에서 혈청 AFP평균치는 혈액 HBsAg 양성군이 110.45±255.47 ng/ml, 음성군이 24.63±103.64 ng/ml으로서 HBsAg 양성군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7) 만성간염 15예에서 혈청 AFP치가 정상범위인 11예의 SGOT평균치는 154.20±147.83 S-F units였고 정상보다 상승한 4예의 SGOT평균치는 152.75±227.57 S-F units로서 양자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8) 간경변증 102예에서 혈청 AFP평균치는 혈액 HBsAg 양성군이 56.08±187.68ng/ml, 음성군이 28.32±92.74/gml로서 HBsAg 양성군서 다소 높았으나 혈액 HBsAg 양성율과 혈청 AFP치의 상승(AFP>45 ng/ml) 사이에는 유의한 상호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p>0.05).

9) 간경변증 102예에서 혈청 albumin치가 3.5 gm%이상인 48예와 3.5 mg%미만인 54예에서 혈청 AFP평균치는 각각 27.58±41.20 ng/ml 및 77.68±161.68 ng/ml였으며 혈청 albumin이 3.5 gm%미만으로 저하될 예에서 혈청 AFP치의 유의한 상승을 보였다 (p>0.05).

31. 血清 Ferritin 放射免疫測定法の 臨床的 意義에 關한 研究

서울醫大 內科

金柄國·金承澤·權仁順
崔康元·李文鎬

血清 ferritin의 測定法을 검토하기 爲하여 3種의 Kit로 그 測定方法, intrarun assay, inter-kit ass-